

# 오승환, 1이닝 무실점... 시즌 첫 승 신고

MLB 워싱턴 내셔널스전서  
콜로라도, 7-5로 승리 거둬

콜로라도 로키스의 오승환(37)이 무실점 피칭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23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와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고 승리 투수가 됐다. 5-5로 팽팽히 맞선 7회초 마운드에 올라 첫 타자 잭 애덤스에게 4구째 커브를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후속 윌머 디포는 조구에 2루수 땅볼로 처리했고, 이어 애덤 이튼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공 8개로 1이닝을 막아낸 오승환은 8회초 스캇 오버그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콜로라도는 7회말 선두타자 놀런 아래나도가 좌월 솔로 이치를 그리며 6-5로 앞섰다. 8회말에는 라이엘 타피아가 솔로포를 터뜨려 한 점을 더 달아냈다. 9회초 등판한 콜로라도 웨이드 데이비스가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콜로라도는 7-5로 이겼다. 오승환은 시즌 첫 승을 가져갔다.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5.63에서 5.00으로 끌어 내렸다. /뉴시스



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이 23일(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7회 역투하고 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  
ITTF 집행위원회에 선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37)이 국제탁구연맹(ITTF)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2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ITTF 정기 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집행위원이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위원 후보가 된 그는 이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임기는 2024년까지다. 한국인 ITTF 집행위원이 탄생한 것은 한상국 전 ITTF 부회장 이후 11년 만이다. ITTF 집행위원은 토마스 베이커트 회장을 비롯해 10명뿐이었는데, 유 위원은 11번째로 합류했다. 연맹 주요 사업과 정책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유 위원은 "ITTF와 대한탁구협회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 탁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부산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를 강조하며 "내년에 한국에서 세계선수권이 열리는 상황에서 집행위원이 된 건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했다. /뉴시스



헝가리 탁구선수권 단식  
한국, 전원 예선 통과  
이상수·정영식 등 10명 출전

2019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개인전)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막을 올렸다. 28일까지 열전에 들어간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이한 세계선수권은 2001년 오사카 대회 이후 단체전과 개인전을 분리해 격년제로 치른다. 지난해 스웨덴에서 단체전이 열렸고, 개인전은 2년 전 독일 뒤셀도르프 대회에 이어 이번엔 헝가리에서 열린다. 138개 국가에서 600여명이 출전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 남자부 이상수(삼성생명), 장우진(미래에셋대우), 박강현(삼성생명), 정영식(미래에셋대우), 안재현(삼성생명)과 여자부 서효원(한국마사회),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유은총(미래에셋대우), 최효주(삼성생명), 이시온(삼성생명) 등 10명이 출전한다. 22일 단식에서 본선 시드 배정을 받지 못한 선수들을 포함, 한국 선수 전원이 예선을 통과했다. 첫 세계선수권 무대를 밟는 박강현과 안재



현, 유은총이 128강전부터 시작되는 남녀 단식 본선 1회전에 진출했다. 복식 본선에서도 순항이 이어졌다. 남자 이상수-정영식은 함유성-리광명과 남북 대결에서 4대 0(11-6 11-7 11-4 11-5) 완승으로 32강에 올랐고, 장우진-박강현도 이집트 선수들을 4대 0으로 완파했다. 여자 전지희-이시온도 태국 선수들을 4대 1로 눌렀다. /뉴시스

장우진은 최효진과 짝을 이룬 혼합 복식에서 16강에 올랐다. 이상수-전지희 조도 가볍게 16강에 진출했다. 세계선수권은 올림픽보다 어려운 대회로 꼽힌다. 올림픽은 남녀 단식에 각 국가에서 2명씩 출전하지만 세계선수권은 5명까지 나선다. 복식 역시 국가당 2개조씩 출전한다. 혼합복식만 정식 종목이 되는 도쿄올림픽에서는 1개 조만 나선다. /뉴시스

## 내달 1일 프로농구 FA 시작

역대 최대 65명... 창원 LG 김시래·김종규 '관심 집중'

프로농구 자유계약(FA) 시장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65명이 시장에 쏟아진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는 창원 LG의 콤비 가드 김시래와 센터 김종규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3일 "5월1일부터 FA 협상을 시작한다. 올해 대상자는 총 65명이다"고 전했다. 이번 시즌 LG의 정규리그 3위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끈 가드 김시래와 센터 김종규가 나란히 FA 자격을 얻었다. 최대이다. 김시래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6경기에서 햄스트링 통증을 견디며 평균 15.8점 5.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김종규는 8경기에서 경기당 20점 8.3리바운드로 활약했다. LG가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두 선수와 모두 계약하는 건 샐러리캡(선수연봉총액) 때문에 쉽지 않다. 2017년 안양 KGC인삼공사의 오세근과 이정현이 동시에 FA 자격을 얻었던 때와 비슷하다. 오세근은 남고, 이정현은 때났다. 2018~2019시즌 기준으로 김시래는 보수 3억8000만원, 김종규는 3억2000만원이다.

김종규의 경우, 국내 빅맨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이정현이 2017년 FA에서 전주 KCC와 9억2000만원에 계약한 게 최고다. 벌써 김종규 영입을 위해 상당한 돈을 준비한 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둘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구단 LG와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16일부터 20일까지 FA로 공식된다.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이 접수되면 이적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90% 이상의 연봉을 제시한 구단 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고액이 1억원일 경우, 9000만원 이상을 써낸 구단이 있다면 선수가 선택할 수 있다. 타 구단의 영입의향이 접수되지 않으면 24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재협상을 벌인다. 김시래와 김종규 외에 주목할 FA 선수로는 울산 현대모비스의 통산 7번째 우승을 이끈 양동근, 함지훈, 문태중 등이 있다. /뉴시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